

“새롭게 거듭나는 검역원, 고객에게 인정받는 검역원이 될 터”

2006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업무안내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강문일입니다.

병술년(丙戌年) 새해·새봄을 맞아 『대한수의사회지』를 통해 회원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검역원은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의 '05년 청렴도 조사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허가, 수입축산물 신고(검사), 검역시행장 지도점검 등 평가대상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상승을 나타내었고, 외부 설문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뚜렷한 향상을 보인바 있으며 올해에도 업무혁신에 역점을 두어 이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검역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74개의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전반적인 재개정 작업을 펼칠 예정인데 이는 들쭉날쭉한 수입위생조건을 표준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부분에서는 3월부터 새로 시작되는「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 이전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전개하겠으며 조류인플

루엔자에 대하여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와 관계 없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1만 건에 달하는 동물용의약품 허가품목에 대하여는 관련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업계자율 관리기반을 구축할 작정이며, 상반기 중에는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물약사심의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원 내부적으로도 동물약사업무 혁신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관련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R&D 분야는 국제적인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국제표준연구실의 인증획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검역원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인정을 얻어 국제신뢰도 향상은 물론 국제적인 수의연구기관의 실현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위생부분에서는 올해 돼지부터 시행되는 농장단위 HACCP 시범적용에 대비하여 평가기준 및 세부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내에 유통되는 부정축산물과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와 지도 등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과」신설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검역원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으며 외부적으로는 수의사회 및 관련분야에 진출해계신 수의사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절실

하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의영역의 기반구축과 확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라도 환영함을 말씀드리며 더욱 겸손하게 고객을 대하는 검역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1 정책목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국 유지

1) 여건 및 추진방향

◇ 국제교역 및 여행객 증가, 주변국에서의 지속적 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국내유입 가능성 증가

- 국경검역강화로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차단
- 예방적 국내방역활동 강화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2) '06년 중점추진계획

가. 국경검역

- 유입 위험도가 높은 시기·지역에 검역역량 집중
-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 국경검역 강화
 - 조류인플루엔자(11~2월), 구제역(3~5월)

- 위험지역 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검색
 - 중국, 몽골, 동남아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 운항노선 집중관리
 - * 검역관 증원배치(63→87명), 검역탐지견 확대배치(2→3개 공항, 19두)
 - * 전국 공·항만 등(38개소)에 신발소독조 설치(232개소, 394개) 등
- 남북 교역로 등 새로운 검역장소 인력보강(2월 중)
 - 도라산(0명→2) 및 고성출장소(3명→6) 인력 보강
 -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활성화로 검역 인력 확충
 - 신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전용 CIQ 인력 추가배치(3명→6)
- 수입전 단계 검역기능 강화를 위한 「위험평가」 기능 보강
 - 사전검역기능 강화를 위한 「수입위험평가과」신설(상반기 12명)

- 수입 국가별, 품목별로 전담자 지정, 위험평가 강화
- 지역화 인정 평가모델 및 「수입위험 통합시스템」 개발 추진
 - 현재 개발중인 수입위험 분석 모델 차질 없이 개발('04~'07)
- 세관, 해양경찰청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강화, 검색효과 거양
 - 보따리상 등 해외여행객 휴대품 X-ray 검색 및 개장검사 공조
 - 취약지역에 대한 공·항만 현지점검 참여 확대(900회/년)
 - 과장급 이상 참여확대 및 지원간 교차점검 실시
- 해외여행객 등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추진
 - 청소년 검역 도우미를 활용, 출국 여행객에 대한 집중 홍보실시
 - 인천공항 등 9개 국제 공항만(1,500회/년)
 - 재외공관 비자 발급시 사전 홍보(반입금지 홍보물 배포)
 - 공항내 PDP(인천 74개, 김포 2개) 및 선·기내 비디오 방영 등 영상 홍보(전용 전광판 20개)
 - 항공사, 여행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사이버 홍보 강화
- 교역국가별 기술협력 및 해외정보 수집 등 대외 대응력 강화
 - 주요 질병 발생국 및 국제기구와 공동세미나 등 기술협력 확대
 - 몽고, 중국, 일본과는 '05년 질병 방역

공동협약 체결

- 교민·유학생을 「해외자문관」으로 위촉 현 지정정보수집 능력 보강
 - 미국, 호주, 칠레, 헝가리 등 10개국 10명
-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 정보동향 수집 분석(250회)
 - 농림부 KMS 및 검역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대외자료 제공

■ 검역기법의 과학화 추진

- 국가별·지정검역물별 수입위생조건 정비
 - 야생동물 수입위생조건, 검역방법 및 기준 등 제·개정
- 축산물 수출의 도축·가공·보관 작업장 관리강화
 -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작업장은 승인 취소 등
- 수입 조사료 분변 탐지견 육성 : ('05년) 1두 → ('06년) 2두

■ 검역정보 관리 및 고객편의 도모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검역정보통합 전산관리를 위한 「Q-Bank 시스템」 구축(8월 중)
 - 자료활용 효율화 및 개인별·부서별 규정적용 객관성 확보
- 검역진행 상황 고객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 고객이 실시간 검역진행 상황 파악 이의 제기 가능

나. 국내방역

- ①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예방적 방역 활동 지속추진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초동방역강화
 - 「특별방역대책」 기간중 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비상체제 유지
 - 지자체 상황실과 핫라인 유지 및 신고전화(1588-9060) 상시 가동
 - 과거 발생지역 등 방역 취약지역(30개 시·군)에 대한 집중 관리
- 현장방역 강화를 위한 예찰 및 홍보
 - 예찰강화를 위해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에 PDA 보급확대(50→100대)
 - ARS/SMS 및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농가 방역요령 홍보
 - 지역양축가, 개업 수의사 등과 협력체계 구축, 현장 동향파악
- 주요 질병별 예방방역 및 검색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 철새도래지·민통선 및 취약지역(21개 시·군) 집중관리
 - 혈청검사(2,000수), 분변검사(1,550점),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 등
 - 조류인플루엔자 집중관리지역(21개 시·군) 특별관리
- 오리농장의 혈청 모니터링 검사 등 예찰검사 추진
-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과 공조로 대국민 홍보 강화
 -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을, 생산자에게는 방역관리 및 조기신고요령 홍보

구제역

- 주변국 구제역 발생(Asia 1형)에 따른 국내 대응책 강구
 - (현행) O1형 → (개선) 다혈청 동시 검사법(O1, Asia 1, A형)
 - * (시·도) 가축방역기관 스크린 검사 → (검역원) 최종 검사
- 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요령 지도·감독 등 홍보강화
- 국내 비발생 검정을 위한 혈청검사 및 항원 검사 추진
 - * 혈청검사: 96,700두, 항원검사: 400건
- 구제역 예방약 비축(430만 두분) 및 항원뱅크(30만 두분) 확보

광우병 등 전염성해면상뇌증(BSE)

- 광우병(BSE) 등에 대한 임상 및 전화예찰 강화(매월)
 -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연계하여 도축장 임상예찰
- BSE 발생국산에서 수입된 소의 특별관리 지속 추진
 - 도축·폐사·도태시 BSE 검사여부 집중 관리
 - 년 2회 이상 시·군 및 사육농장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 BSE 검사기관에 따른 시·도 가축방역기관 기술지원
 - * BSE 진단요원 대상 스크린 검사(ELISA) 기법 등 지도

②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 소 부루세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역 기술지원
 - 시·도의 정기검진 강화를 위한 진단액 생산 보급
 - 진단액 보급계획 : ('05) 43천두 → ('06년) 50천두
 - 다발지역 및 발생농장의 재발방지를 위한 역학분석
 - 발생농장 방역지침 및 교육 매뉴얼 작성·보급
 - * 호주 등 축산선진국의 부루세라병 근절사례 분석 벤치마킹
- 돼지의 소모성 질병 등 주요 돼지질병의 방역관리 강화
 - 돼지 소모성 질병의 농가 피해방지를 위한 종돈장 혈청검사(시·도 협조)
 - (현행)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 → (개선) 소모성질병 추가(2종)
 - * 추가되는 질병 :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유행성설사(PED)
 - 돼지콜레라 근절기반 조성을 위한 예찰 및 현장지도
 - 신속검색 및 백신접종강화를 위한 혈청검사(12,000건)
 -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 추진(1회/반기)
 - 농가의 방역·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방역지침 마련
 - “양돈장 방역·위생 자체평가표” 제작·배포
 - 축산전문지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질병발생 동향 분석자료 제공, 신속 예방강화를 위한

- 발생주의보 발령
 -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
 - 현장 수의사·양돈협회 등과 정기 협의회 개최
- 닭 뉴캐슬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접종 강화
 - 시판중인 백신 효능평가 및 개선
 - 백신주와 야외주 감별을 위한 신속진단키트 적기공급(9천수)
 - 예방접종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광견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
 - 미끼 예방약 살포사업 평가, 혈청검사 및 발생 역학분석 등 실시
 -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 및 혈청검사 (1,200두)
- ③ 중앙가축방역기관으로서의 방역활동 강화
 - 지자체의 가축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가축질병중앙예찰협의회」 지역별 순회 개최 등 운용 내실화
 - 우수 방역기술 발굴·홍보를 위한 「방역기술 전진대회」 개최
 - 전국 방역기관간 유대강화의 장으로 발전 (3월, 300명)
 - 진단액 품질검정 강화 및 적기보급
 - 자체 생산 진단액 품질검정 강화
 - '06년 : 국제공인 표준진단액과 비교시험을 통해 검정
 - '07년 이후 : 생산기술 민간 이전후 품목허가 등 사후관리 강화

- 국가검정 진단액 차질없이 생산·보급
 - ('05) 66종 984천두(수)분 → ('06) 69종 933천두(수)분
- ④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 제도 및 사후관리 개선
 - 취급규칙(농림부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 동물용의약품 등 신고품목 및 신고요령 등 25개 고시 제·개정
 - 제조 및 수입업체에 대한 분기별 정기약사감시(84개소) 및 수거검사 실시(1,500건)
 - 주요 위반사항(표시사항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및 계도
 - * 약사감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감시 효과 거양
 - 자율점검제 지속추진을 통한 업계자율 관리 기반 구축
 - 모든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 실시(년1회 이상)
 -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약사감시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 안전성 평가 심의를 위한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학계 등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운영 (상반기중)
 - 신약과 기 허가된 제품들의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재심사(평가)제도 마련
 - 고객편의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및 동물용의약품 허

가정보 공개

- 「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의 신고업무를 한국동물약품협회 위탁

2 정책목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1) 여건 및 추진방향

- ◇ 사료·농장에서 식탁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전 안전성관리 및 부정축산물 유통감시 기능강화
 - 불량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 소비자 보호

2) '06년 중점추진 계획

가. 국내산 축산물

- 농장에서의 HACCP 단계적 추진
 - 농장(사육·집유)단계에 선진위생관리제도 도입 추진
 - '06년부터 돼지사육단계에 대한 시범적용에 대비하여 평가 기준 및 세부절차 등 마련
 - * 도축·가공·유통단계는 이미 HACCP 적용중이며, 농장단계 적용으로 유통·소비단계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축산물 안전관리 가능
 - '05년부터 적용하는 배합사료공장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 HACCP 지정공장(35개) 사후관리와 미 지정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

해 조기 지정유도

- 축산물 가공·유통단계 HACCP 적용 확대 추진(50 개소)
 - 성숙단계에 들어선 축산물가공업 HACCP 적용 품목확대
 - (현행) 15품목 → (확대) 17품목
 - 식육판매업 등 유통·판매업 HACCP 조기 정착유도
 - 세부 기준(안) 마련 및 적용(하반기)
- 소비자와 함께하는 위생 감시활동 강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방적 기획 감시 실시
 - 성수기와 하절기등 취약시기 특별위생감시 (4회)
 - 국민 다소비 품목(햄, 소시지, 우유류) 위주의 집중 수거검사(500건)
 - 집단급식업소, 대형유통점 대상 특별 기획감시 실시
 - * 축산물감시과(10명) 신설·운영
 - 소비자 참여확대로 위생감시의 신뢰성·효율성 제고(2,200건/년)
 -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위생감시에 적극활용(250명/년)
 -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현장보고회 및 업종별 간담회 개최(6회)
 - 생산·유통업체 홈페이지의 게시내용 분석·대응 및 감시
 -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 (1588-9060) 홍보 및 활성화
 -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위생관리 홍보전략 구사
 - 안전축산물 선택요령 등 홍보물 제작·배포(3만부)

- 수도권 전철(1,2,3,5호선) 등에 HACCP 홍보물 게재

축산물 검사·관리 체계의 과학화 추진

-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의 개선으로 검사 효율성 제고
 - NRP 운영전담팀(3명) 구성·운영 및 검사대상 부위확대 시범적용(근육→근육, 신장)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정도관리와 기술교육으로 분석능력 향상
 - 대상기관 : 40개 기관(지자체 18, 민간 22), 1회/년
- 위험관리와 위험평가기능을 분리, 위험관리 기법 선진화
 - * 위험정보 교환 강화를 위해 소비자 단체와 정보교환 「핫 라인」 구축
- 안전성 조사를 위해 미생물·잔류물질 탐색 조사 실시(3,380건)
- 신종 유해물질 위해평가기술 및 분석법 표준화

나. 수입 축산물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검사강화
 - 현지출장을 통한 시스템 점검 실시(3월중, 3개팀 6명)
 - 수출작업장에서 연령 감별 및 뼈, SRM 제거 등 합의내용 이행 가능여부 집중 점검
- 수입시 검사 강화
 -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1%에서 5% 이상으로 강화
 - * 절단검사 등을 통해 뼈 포함여부 등 철저 검사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안전검사 체계 구축

- 수입축산물 정밀검사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상반기)
 - 서울·부산지원 정밀검사2과 신설(인력 26명은 '05년 기 확보)
- 농약·호르몬 등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검사 강화
- 축산물 위해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 축산물 수입판매업('05.1월 현재: 2,017개소) 신고업무를 지자체에서 검역원으로 이관 추진(법령 개정중)
 - * 수입 축산물로 인한 긴급위생위험 발생시 중앙정부차원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추적 조사와 행정처분 가능
- 수입축산물 회수(Recall)대상 등 긴급위생조치 기준(SOP) 마련
 - 불합격 및 회수 등에 동일기준 적용으로 국제적 신뢰도 향상 및 민원발생사전 차단
- 수입 축산물 검사체계의 국제화 추진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 확대로 국제신뢰도 향상
 - ISO/IEC 17025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미생물, 잔류물질 등 검사분야 인정 확대 기반 강화
- 축산물 중 유해화학물질 등 「표준매뉴얼」 발간·보급으로 검사기관간 검사방법의 표준화 및 검사 신뢰성 제고
- 수입축산물의 항생제 내성균 분포조사(2년차 사업)
 - 항생제 내성자료를 축적하고 정책결정 기

초자료로 활용

- 수입식육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검사 및 탐색조사 실시
 - 모니터링(1,800건), 탐색조사(2,350건)

3 정책목표

현장중심의 연구력 배양

1) 여건 및 추진방향

- ◇ 질병진단방제 등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연구수요 증가
 - 과학적인 평가·검증 강화로 국제경쟁력 확보

2) '06년 중점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현장적용 기술 개발 연구
 - 분야별 협의체를 통한 현장애로 파악 및 연구과제 도출
 - 양돈, 양계 등 8개 협의체별 연간 2회 이상 개최
- 연구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국내외 협력 강화
- 국제공동연구사업 확대 : ('05년) 2국 3과제 → ('06년) 3국 4과제
 - 아시아지역 조류인플루엔자 공동방제를 위한 연구네트워크 구축
 - * 일본, 몽골, 중국과는 '05년 질병공동연구 협약 체결
- 주요 가축 질병 국제표준연구실 인증 추진
 - 돼지콜레라 동아시아지역 표준진단 실험실 신청(상반기)

- 부루세라 국제표준연구실 인증기반 구축을 위한 현지실사(하반기)
- 국내외 대학연구소 등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
 - ('05) 8과제 → ('06) 16과제
-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와 객관적 검증체계 구축
- 연구과제 및 성과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하반기)
 - 연구 과제별 성과물 코드관리화로 과제 중복예방 및 활용도 제고
- 산업체 기술전수, 특허설명회 등을 통한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
 - 논문게재 등 학술발표 : ('05) 162건 → ('06) 180건
 - 특허·기술 이전 등 : ('05) 43건 → ('06) 52건
-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및 기술사용자에 의한 검증체계 확립
 - 연구사업 평가회에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 예방약 등 개발된 기술은 활용 전 야외시범적용 등 검증강화
- 국가전략 및 미래지향적 기관핵심 선도과제 집중화
-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구제역 등 국가 재난 대비형 질병
- 슈퍼박테리아,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
- BT, NT 등 21C 주도 첨단기술 및 실용화 기술 응용
 - 유전자칩을 이용한 가축질병 동시진단 시스템 개발 등
- 객관적 성과평가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연구 경쟁력 강화
- 평가부문 : 4개 부문 10개 평가 지표(26세부 평가항목)
- 평가보상 : 포상, 시험연구비, 시험연구장비 차등지급 등 

